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보도 일시	2022. 8. 5.(금) 17:40	배포 일시	2022. 8. 5.(금) 17:4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장 안미란 (044-203-2461)
		담당자	사무관 조영권 (044-203-2464)

다양한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 지원한다

- 문체부 장관, 대중음악업계 간담회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8월 5일(금) 오후 3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대중음악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우리 대중음악은 한국 문화 매력의 상징과도 같다.”라고 강조하며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음악산업 관계자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대중음악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중음악업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 하이브(HYBE) 김태호 최고운영책임자(COO),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최고재무책임자(CFO),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정치영 상무이사,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김상호 대외협력이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조기현 총괄사장,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강명진 대표, 세종시문화재단 김혜옥 예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 뮤직비디오 심의 규제 완화, ▲ 방송사와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 가수의 저작인접권 배분 비율 개선,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속 건립, ▲ 콘서트 암표 단속, ▲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중소 기획사 해외 진출 관련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중음악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 개선, 해외 기반(인프라)을 연계한 공연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음악인을 위한 음악창작소 지원 확대 등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